

NEW-TECH 트렌드

2026-3월호



목 차



테마동향 1

AI 군사 활용으로 인한 리스크 변화와 보험산업의 대응 1

AI가 군사 영역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전쟁 수행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 기업과 정부 간 AI 활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엔트로픽이 미국 정부에 의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되면서 국방 관련 모든 계약이 중단되었으며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전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음. 이처럼 국내 보험산업 역시 AI 군사 활용에 따른 보험 리스크 변화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응해야 함

AI, 전쟁에 들어가다

<p>이거... AI가 표적을 잡아준다고?</p> <p>AI가 단순 기술이 아니라 전략 무기로 사용됨</p>	<h4>AI 기업 vs 정부</h4> <p>우린 실상무기에 쓰는 건 제한할거대!</p> <p>AI는 군사 분야에 자유롭게 써야 한다!</p> <p>핵심 갈등: AI 통제권 “누가 사용 범위를 결정하나?”</p>
<h4>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h4> <p>공급망 위험</p> <p>정부, AI 기업 거래 중단</p> <p>AI 기업도 정치 리스크에 직접 노출</p>	<h4>기업의 충격</h4> <p>수익 달려 손실이라고...?</p> <p>정치 갈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사례 발생</p>
<h4>보험의 혼란</h4> <p>사이버 공격? 전쟁?</p> <p>이게 전쟁이야 사이버 사고야?</p> <p>전쟁 여부에 따라 보험 보장 여부 달라짐</p>	<h4>보험의 새로운 과제</h4> <p>AI 군사 활용 확대에 보험도 바뀌네</p> <p>공급망 리스크 평가 필요 사이버 전쟁 리스크 반영</p>

AI 시대, 보험도 바뀐다

상기 이미지는 챗GPT를 활용하여 생성

목 차



신기술 동향 4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줄이는 '아마존 커넥트 헬스' 출시	4
구글, AI로 '도시 돌발 홍수' 예측한다	5
카이스트, 세계 최초 'AI가 운영하는 무인공장' 구축	6
로봇이 밥 차리고 침술까지... 中 세계 첫 'AI 돌봄센터'	7
ETRI, 복잡한 심부름도 척척... '계층적 AI 에이전트' 개발	8
제조부터 주행까지 'AI'로... KG모빌리티, 미래모빌리티 전환 '속도'	9



보험산업 동향 10

보험료도 AI로 산출한다... 코리안리, 국내 최초 '요율산정 AI' 도입	10
DB손보, '보험 보상' 전 과정에 AI 입힌다... 보상체계 자동화	11
"AI 실수도 보상"... 일레븐랩스, 세계 첫 AI 에이전트 보험 도입	12
일본생명, 오픈AI에 151억 원 손배소... "챗GPT가 무면허 법률 조언"	13
영국 보험사 Mosaic, AI 개발자를 위한 성능 보장 보험 출시	14
USD.AI와 Barker, Munich Re가 보증하는 GPU 대출 보험 출시	15
Guidewire, 건물 위험 정보를 보험 업무 전 과정에 통합	16



정책 소식 17

정부, 246개 AI 응용제품 개발에 7,540억 원 지원 예정	17
지방선거 딥페이크 올리자 'Fake'... 97% 정확도로 잡는다	18
입법조사처, 'AI 지방세 징수 체계' 도입 제안	19
과기정통부, 피지컬AI 선도 분야 보안 가이드라인 공개	20
"정부 서비스도 대화로 찾는다"... AI 적용한 '정부24+' 시범 서비스	21
지방재정도 AI 시대... 일상 언어로 묻고 답하는 지능형 서비스 시작	22
"AI가 신고 접수"... KT, 소방청과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23

* New-Tech 트렌드 자료는 웹페이지 (<https://bigin.kid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메일링서비스 요청 시 bigin@kidi.or.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AI 군사 활용으로 인한 리스크 변화와 보험산업의 대응

출처: MSTODAY(2026.03.10.) 엔트로픽, 美 '공급망 위험' 지정에 소송...AI 군사 활용 두고 정부와 정면 충돌
ZDNet Korea(2026.03.11.) [카드뉴스] AI기업이 정부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

<AI의 군사 활용>

- 최근 이란과 베네수엘라 공습,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AI가 기밀문서 해석, 위협 탐지, 전술 제안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기술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남

<AI 활용 군사 작전 사례>

AI	사례
엔트로픽 '클로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작전에 사용
미 국방부 '프로젝트 메이븐'	드론 영상 속 사람과 물체를 AI로 자동 식별해 정찰·정보 분석에 활용
이스라엘군 '라벤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연계 의심자 약 3만명의 표적 명단 생성

자료: 국민일보

- 실제로 이번 이란 공습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Claude 모델을 활용했다는 사실과 미국 국방부가 OpenAI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군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음
- 또한,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의 잠재적 군사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및 정찰 체계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기반 사이버 전쟁 역시 확대되고 있음
- 이처럼 AI가 군사 의사결정과 사이버전 등에 활용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 역시 정치적 위험 및 사이버 보험에 대한 리스크 변화에 직면
 - 엔트로픽은 이란 공습에서의 AI 활용을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미 정부로부터 국방 관련 거래 및 방산 계약망 전반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소 수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상황에 놓임
 - 또한, AI 군사 활용 범위가 사이버 공격으로도 확대되면서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공격을 전쟁으로 볼 것인지 사이버 사고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 따라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AI 군사 활용 확대에 따른 정치적 위험 보험 및 사이버 보험 리스크 변화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함

<정부와 기업 간 AI 통제권 갈등과 정치적 위험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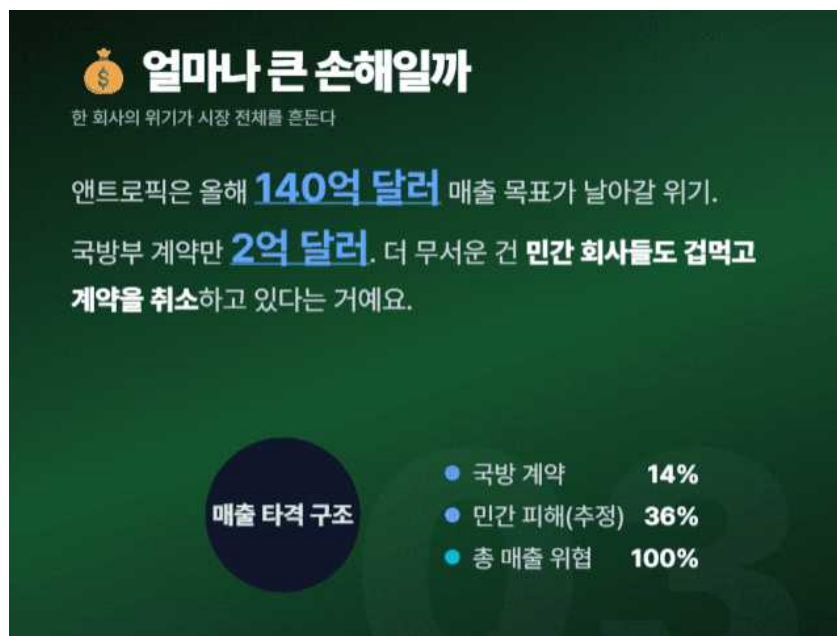
- 최근 이란 공습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 엔트로픽 사이에서 AI 군사 활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 즉 'AI 통제권' 갈등*이 발생하면서 엔트로픽의 사업 중단 및 손실을 초래

* AI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그 사용 범위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

- 미국 국방부는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합법적인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규모 감시나 자율적으로 공격 결정을 내리는 무기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원했으나,
- 엔트로픽은 '자사의 AI가 자율살상무기 개발이나 대규모 감시 체계에 활용되는 것에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을 보임
- 미국 정부는 결국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국방 관련 거래에서 배제하면서 엔트로픽과 맺은 2억 달러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민간 기업들도 엔트로픽의 AI 모델 사용 금지에 대한 우려로 계약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엔트로픽은 막대한 매출 감소 가능성에 직면

*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판단해 공공기관 및 관련 공급망에서 사용·거래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

<엔트로픽의 '공급망 위험' 지정으로 인한 예상 손해액>



자료: ZDNet Korea

- 이처럼 AI 군사 활용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기술 통제나 안보 정책 변화로 인해 특정 기업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손실을 보장하는 정치적 위험 보험의 리스크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됨
- 정치적 위험 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은 전쟁, 제재, 정부 정책 변화 등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기업이 입는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 예를 들어, 해외 투자 기업이 정부의 정책 변화나 국가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자산이 동결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함

- 이번 조치는 공급망 위험 규제가 미국 기업에 적용된 첫 사례로서, 기술 기업들이 정부에 의해 사업 중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치적 위험 보험의 신규 리스크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사는 AI 기술 기업의 기술 통제력, 대체 가능성, 국방 공급망 의존도 등의 리스크를 분석해 공급망 차단 위험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AI 기술의 사이버 공격 증가와 전쟁 면책 논쟁>

- AI 군사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볼 것인지 사이버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의 나토 회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24년 대비 '25년에 25%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유럽의회 의원 선출에 대한 선거 관련 서비스도 표적이 되었음
 - 대표적인 사례로 'NotPeta 사이버 공격 사건'은 2017년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Merck)가 러시아 정부 차원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14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사건으로, 에이스 아메리칸 보험은 전쟁 면책을 이유로 해당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이에 대해 6년간 지속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전통적인 전쟁 면책 조항은 물리적인 재래식 군사 행동을 의미하며 사이버 전쟁 행위를 포함한다는 조항이 없어 전쟁 면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 이에 따라 로이즈 보험 조합은 전쟁 면책 조항 수정본을 공식 발표하며 국가 지원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보험보장에서 제외하도록 함
- 우리나라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을 둘러싼 세계 보험업계의 전쟁 면책에 대한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들은 로이즈 보험 조합의 전쟁 면책 조항 예시를 참조하여 자사의 보험약관에 구체적인 사이버 전쟁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등 보장범위를 명확히하여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음

<AI 군사 활용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 이처럼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전략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보험산업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어떤 새로운 위험 구조를 만들어낼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란 공습을 계기로 북한 등 주변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지정학적·사이버 안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AI 군사 활용과 이에 따른 보험 리스크 변화에 대해 베네수엘라, 이란 공습,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줄이는 '아마존 커넥트 헬스' 출시

-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는 의료 기관과 환자를 위한 '아마존 커넥트 헬스(Amazon Connect Health)'를 출시했다고 밝힘('26.3.5.)
 - '아마존 커넥트 헬스'는 환자 인증, 예약 관리, 의료 기록 검토, 진료 문서 작성, 의료 코드 생성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자동화해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 에이전틱 AI 기반 솔루션
- '아마존 커넥트 헬스'는 자연어 기반 AI 인터페이스를 통해 환자와 대화하며 예약을 진행하고, 환자 신원 및 보험 가입 여부, 의사 일정 확인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
 - 예를 들어 환자가 "다음 주 퇴근 후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 AI가 환자 상황과 의료진 일정을 분석해 즉시 예약이 가능함
 - 또한 의료 기관이 사용하는 전자 건강 기록(EHR) 시스템과 연동돼 환자의 의료 기록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아마존 커넥트 헬스'는 단순 예약 시스템을 넘어 진료 전·중·후 과정 전체를 지원하도록 설계됨
 - (진료 전)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해 주요 질환, 최근 의료 이벤트, 건강 변화 추세 등을 요약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 전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음
 - (진료 중)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사와 환자 간 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임상 노트를 작성할 수 있음
 - (진료 후) 환자에게 제공할 방문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고, 보험 청구를 위한 의료 코드도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
- AWS는 이번 솔루션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AWS는 "환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행정 업무가 아닌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 "앞으로 의료 기관과 협력해 AI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구글, 시로 ‘도시 돌발 홍수’ 예측한다

- 요시 마티아스 구글 리서치 부사장은 홍수 사건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단위의 홍수 예측 모델을 공개하였음(’26.3.12.)
 - 이번에 공개된 구글의 홍수 예측 모델은 공공 보고서와 뉴스 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분석해 전세계 홍수 사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 해당 모델을 사용하면 그동안 예측이 어려웠던 지역의 홍수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구글의 돌발 홍수 가능성 예측 지도>



자료: 매일경제신문

- 과거에는 많은 국가에서 홍수 기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아 AI 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 구글의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제미나이’를 활용해 전세계 뉴스 기사와 공공 기록을 분석하였고, 150개 국가에서 260만 건의 역사적인 홍수 사건을 추출하였음
 - 추출된 사건의 위치를 구글 지도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지도 상의 좌표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도시 단위의 홍수 데이터를 AI 예측 모델에 학습시켰음
 - 이와 더불어 강수량과 기온, 기압 등 기상 데이터와 지형 정보, 위성 기반 환경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특정 지역에서 향후 24시간 안에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하였음
 - 연구진은 해당 모델이 미국 기상청의 홍수 경보 시스템과 비교해도 유사한 수준의 예측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
- 구글은 이번에 구축한 모델을 연구자와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
 - 다만, 한국의 기상법은 기상 관측을 기반으로 한 예보나 예측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기상청 또는 허가받은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계로 150개 서비스 국가에서 제외됨

출처: 매일경제신문(2026.03.12.) 구글, AI로 ‘도시 돌발 홍수’ 예측한다...150개국 260만건 데이터 구축

카이스트, 세계 최초 'AI가 운영하는 무인공장' 구축

- 카이스트(KAIST)는 로봇과 센서, 설비, 디지털 트윈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어하는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카이로스(KAIROS)'를 구축했다고 밝힘('26.3.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통해 개발된 카이로스는 피지컬 AI 기반의 100% 무인 공장 플랫폼으로, 공장 내 다양한 장비를 AI 에이전트 기반 단일 운영체계(OS)로 통합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카이스트의 '카이로스' 운영 모습>



자료: 카이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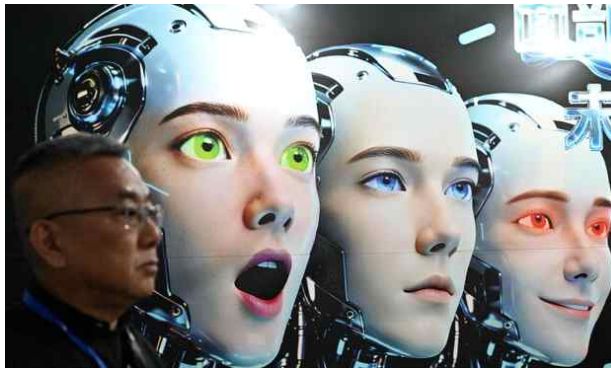
- 이번 테스트베드는 센서-제어-데이터 처리 전 구간을 100% 국산 기술로 통합 구축한 것이 핵심
 - 물류로봇(AMR), 휴머노이드로봇, 무선충전 시스템, 디지털 트윈 및 시뮬레이션, AI 기반 통합 관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 등 다크팩토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국산화함으로써, 해외 의존도가 높던 공장 자동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K-제조 공장 수출 모델'의 기반을 마련
 - * 불꺼진 공장이란 뜻으로, 사람이 거의 없이 자동화 설비와 AI·로봇만으로 돌아가는 공장을 의미
- 카이스트는 향후 카이로스를 통해 다크팩토리 설계·구축·운영을 아우르는 차세대 공장 운영체계(OS)를 고도화하고, 시뮬레이션과 가상 검증 환경을 발전시킬 계획
 - 또한 국내 로봇·자동화 기업이 신뢰성 높은 장비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플랫폼으로 활용해 산업 적용성을 높인다는 방침
 - 나아가 독일 지멘스(Siemens), 일본 파낙(FANUC), 야스카와(Yaskawa) 등과 경쟁 가능한 피지컬 AI 기반 다크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
-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카이로스는 AI가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며,
 -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제조 혁신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힘

출처: 머니투데이(2026.03.23.) 카이스트, 세계 최초 'AI가 운영하는 무인공장' 구축

로봇이 밥 차리고 침술까지... 中 세계 첫 'AI 돌봄센터'

- 중국의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에서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통합한 '스마트 노인 돌봄센터'가 세계 최초로 개원하였다고 보도('26.3.12.)
 - 베이징에 개원한 '스마트 노인돌봄센터'에는 현재 24개 기업이 개발한 40대 이상의 로봇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 중국 정부는 향후 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첨단 기술이 저출산·고령화로 돌봄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중국에서 열린 국제 인공지능 응용 및 로봇 혁신 전시회>



자료: 국민일보

- '스마트 노인돌봄센터'에서는 AI·로봇을 활용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
 - 센터에서는 조리 로봇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만들고, 한방 마사지 로봇이 마사지와 뜸 치료를 하고 있으며, 비접촉식 AI 건강모니터링 기기가 카메라로 얼굴의 혈류를 분석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사람들은 활동 보조용 외골격 로봇을 통해 이동 훈련을 받거나, 바둑 로봇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음
 - 한방 마사지 로봇을 제작한 베이징 비전시크 CEO는 "우리 회사의 로봇은 혈자리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고 인체의 특정 부위를 식별한다"면서 "치료사들의 기법을 학습·모방해 15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
- 센터 자문위원인 수도의과대학 징후이취안 교수는 "기술은 노인돌봄과 일상생활에 혁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인간과 기계가 돌봄을 위해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
 - 베이징시 관계자는 "로봇 기술이 돌봄 부문에 더 깊이 응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곳을 시작으로 경제개발구 전역에 과학기술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국민일보(2026.03.19.) 로봇이 밥 차리고 침술까지... 中 세계 첫 'AI 돌봄센터'

ETRI, 복잡한 심부름도 척척...‘계층적 AI 에이전트’ 개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복잡하고 긴 절차가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하위 목표로 나누어 수행하는 계층적 작업 계획 인공지능(AI) 기술 ‘ReAcTree(리액트리)’를 개발했다고 발표(’26.3.12.)
 - 이번 연구 성과는 대형언어모델(LLM)이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로봇이나 가상 에이전트가 실제 생활 속 복잡한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최근에 개발된 대형언어모델은 뛰어난 언어 이해와 추론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리나 청소처럼 여러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장기 작업(Long-Horizon Task)을 수행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기존 방식은 모든 절차를 하나의 긴 흐름으로 처리하는 구조여서, 단계가 길어질수록 앞선 지시를 잊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ETRI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층적 에이전트 트리 구조(Hierarchical Agent Trees)’를 도입한 리액트리를 개발하였음
 - 리액트리는 계층적 구조 도입을 통해 ‘상위 에이전트가 전체 목표를 관리하고, 하위 에이전트들에게 세부 임무를 나누어 맡기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됨
 - 예를 들어 “감자 슬라이스를 익혀서 냉장고에 넣어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리액트리는 이를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식칼 찾기’, ‘감자를 찾아 자르기’, ‘자른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냉장고에 보관하기’ 등으로 목표를 세분화 한 뒤 각 하위 에이전트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기존 AI는 중간에 감자를 데우는 과정을 생략하는 등 논리적 오류를 빈번했던 반면, 리액트리는 계층화를 통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됨
 - 추가적으로, 연구진은 과거 성공 경험을 저장했다가 유사 상황에서 활용하는 ‘일화 메모리(Episodic Memory)’, 현재 환경 정보를 모든 에이전트가 공유하는 ‘작업 메모리(Working Memory)’를 리액트리에 적용해 판단력과 실행 능력 및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음
- ETRI 김도형 소셜로보틱스 연구실장은 “리액트리는 복잡한 절차를 논리적으로 분해하고, 에이전트 간 협업을 통해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 “앞으로 환각 현상을 더욱 줄이고, 에이전트가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기능까지 추가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로봇신문(2026.03.12.) ETRI, 복잡한 심부름도 척척...‘계층적 AI에이전트’ 개발

제조부터 주행까지 'AI'로...KG모빌리티, 미래모빌리티 전환 '속도'

- KG모빌리티는 한국기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힘('26.3.20.)
 - 이번 협약은 국책 과제인 '자율성장 AI 휴머노이드 전략연구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 국가 로봇 기술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고 로봇의 수행 능력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AI 휴머노이드 업무협약식>



자료: KG모빌리티

- 이번 기술협력을 통해 KG모빌리티와 한국기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제조 현장의 요구사항을 기획 단계부터 반영한 맞춤형 로봇을 개발할 계획
 - 특히 고난도 공정에서의 AI 휴머노이드 작업 수행 능력 검증은 물론 기존 작업자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및 현장 적응력을 평가할 예정
 - 이를 위해 KG모빌리티는 휴머노이드 자동차 검사 공정 및 부품 이송 조립 공정 등 실제 생산 공정을 AI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환경으로 제공할 계획
 - 한국기계연구원은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표준 휴머노이드 플랫폼 총괄 설계와 고하중 작업이 가능한 구동 하드웨어를 개발할 예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작업자 언어 지시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작업 알고리즘 등 차세대 지능 개발을 담당할 계획
-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제조 공정 전반의 자동화 혁신을 이루고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을 효율적으로 탑재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밝힘

출처: 서울파이낸스(2026.03.20.) 제조부터 주행까지 'AI'로...KGM, 미래모빌리티 전환 '속도'
 뉴스1(2026.03.20.) KGM, 기계·전자통신 연구원과 맞수...AI 휴머노이드 개발

보험료도 AI로 산출한다...코리안리, 국내 최초 '요율산정 AI' 도입

- 국내 최대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요율산정 AI 어시스턴트를 본격 도입할 예정
 -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안리가 신청한 기업성 보험 요율산정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 * 현행 규제에 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 일정 기간 시장 테스트를 지원 하는 제도
 - 코리안리의 요율산정 AI 어시스턴트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머지 않은 미래에 보험료 산출을 AI가 주도적으로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됨
- 코리안리는 지난해 7월부터 별도 조직을 만들어 AI 어시스턴트 개발을 추진해 왔음
 - 코리안리는 현재 아마존이 제공하는 AWS Bedrock, GCP(구글클라우드)의 GCP Vertex AI를 활용해 기업성 보험 요율산정 AI 어시스턴트를 개발 중이며,
 - 향후에는 '보험사로부터 요율구득문서*'를 접수해 보험요율이 산출되는 전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 원수보험사가 재보험사에 특정 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을 요청하기 위해 보내는 서류
- 앞으로 코리안리에 기업성 보험 요율을 요청하는 보험사들은 AI가 산정한 보험요율을 받게 될 전망
 - 이는 곧 보험사를 통해 기업성 보험에 가입하는 일반 보험가입자들도 AI가 산정하는 보험요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
- 코리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AI가 산정한 보험요율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
 - 코리안리는 이후 재물보험, 특종보험 등 기업성보험 전반으로 AI가 산정한 보험요율이 반영되는 상품군을 확대할 방침
- 전문가들은 금융업권 중 보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보고 있음
 - 그 이유는 확률과 수학을 바탕으로 미래 손해·위험을 예측하는 보험 업무에 AI가 활용될 경우 오류를 줄이고 보험료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
- 코리안리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에 테스트베드 형태로 AI 어시스턴트를 적용하고, 다른 상품 종목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전자신문(2026.03.22.) 보험료도 AI로 산출한다...코리안리, 국내 최초 '요율산정 AI' 도입

DB손보, '보험 보상' 전 과정에 AI 입힌다…보상체계 자동화

- DB손해보험은 보험 보상업무 자동화의 일환으로 고객 참여형 보상 시스템 'AI 에이전트'를 정식 오픈하였음('26.2.22.)
 - 'AI 에이전트'는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해 주는 STT(Speech-To-Text), 문자를 음성언어로 변환하는 TTS(Text-To-Speech)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삼성 SDS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됨
 - DB손보 고객들은 'AI 에이전트' 개발로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보상 절차 안내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해당 서비스는 단순 업무 효율 개선이나 반복적인 보상 안내 자동화 수준을 넘어, 고객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투명·신속한 보상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
- DB손보는 자동차 사고 접수 시 AI를 활용하여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초기 안내 및 사고 관련 기초 정보를 확보하고, 해당 정보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지원할 예정
 - 이 과정에서 고객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정비공장 정보 입력, 치료 내용 및 병원 정보 입력, 미치료 또는 차량 미수리 건에 대한 안내까지 AI와의 대화를 통해 직접 진행하게 됨
 - 이는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상 전 과정에 고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상담 방식과 차별화됨
- DB손보는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및 담보를 시작으로 장기 보상까지 AI 적용을 확대할 계획
 - 기존에도 보험금 소액 지급 건 및 단순 담보엔 보상 자동화가 적용됐지만, DB손보는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전 상품 보상 절차에 AI를 반영할 예정
 - 이는 그간 수작업에 의존해 진행됐던 보상 과정을 AI 기반으로 통합하는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DB손보는 AI 기반 보상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고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DB손보 관계자는 “AI 기술은 단순 보조 수단이 아닌 고객 경험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이라며,
 - “앞으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보상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

출처: 전자신문(2026.03.04.) DB손보, '보험 보상' 전과정에 AI 입힌다…보상체계 자동화

"AI 실수도 보상"...일레븐랩스, 세계 첫 AI 에이전트 보험 도입

- 영국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기술 기업 일레븐랩스(ElevenLabs)는 미국의 AI 리스크 평가 전문 기업인 'AIUC'와 협력해 AI 에이전트 전용 종합 보험 상품을 세계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힘('26.3.18.)
 - 이로 인해 앞으로는 일레븐랩스의 대화형 AI 에이전트 '일레븐에이전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
 - 해당 보험은 한국에서 '일레븐에이전트'를 도입한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
- 많은 기업이 AI 에이전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이 파일럿(시범 운영) 단계에서 머물러 있음
 - AI 환각이나 AI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따른 기업의 법적·경제적 책임이 AI 에이전트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
- 일레븐랩스는 AI 에이전트 전용 종합 보험 설계를 위해 AIUC와 협력해 위험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AI를 하나의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음
 - 일레븐랩스는 최근 AIUC가 개발한 AIUC-1*(보안·신뢰성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 * 해당 인증은 환각, 프롬프트 인젝션, 데이터 유출, 편향성 문제 등 실제 AI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5,000건 이상의 적대적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과해야 부여
 -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AIUC가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전용 보험 가입하였음
- 일레븐랩스는 이번 보험 가입이 AI를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는 도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밝힘
 - 특히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적절한 안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명확한 리스크 관리 체계 안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전함
- 마티 스타니셰프스키 일레븐랩스 CEO는 "기업의 AI 에이전트 도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AIUC-1 인증은 기업이 대규모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

출처: 뉴시스(2026.03.18.) "AI 실수도 보상"...일레븐랩스, 세계 첫 AI 에이전트 보험 도입

CIO 코리아(2026.03.18.) "'AI가 실수하면 보험으로 보장' 일레븐랩스, AI 에이전트 리스크 보장 체계 공개

일본생명, 오픈AI에 151억 원 손배소... "챗GPT가 무면허 법률 조언"

- 일본생명보험(닛세이)의 미국 법인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 니혼게이지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생명 미국 법인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1천 30만 달러(약 15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 챗GPT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조언을 제공해 회사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일본생명보험 측 주장의 요지

<일본생명 로고>



자료: 일본생명 홈페이지

-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형 AI 기업을 상대로 '무면허 법률 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일본생명과 장애보험금 수급자 간의 분쟁으로, 양측은 과거 보험금 지급 문제로 대립하다 화해에 이르렀으나 해당 수급자가 챗GPT의 조언을 받은 뒤 합의 파기를 시도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함
 - 일본생명은 이미 법원에서 각하됐음에도 이 수급자가 자사를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설명
- 소송 금액은 실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손실분 보상 30만 달러,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배상금 1천만 달러를 합친 금액
 - 이번 소송은 AI의 답변이 어디까지 법적 조언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개발사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 세계 정보기술(IT) 및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출처: 보험매일(2026.03.06.) 일본생명, 오픈AI에 151억 손배소... "챗GPT가 무면허 법률 조언"

영국 보험사 Mosaic, AI 개발자를 위한 성능 보장 보험 출시

- 영국 보험사 Mosaic Insurance는 Munich Re와 협력해 AI 개발자와 공급업체를 위한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보도('26.2.26.)
 - 이 상품은 Munich Re의 AI 위험 평가 도구인 aiSure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기존 보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AI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
 - Mosaic은 Munich Re의 AI 성능 보장 보험을 일정 한도와 조건을 갖춘 상품 형태로 시장에 제공하며 활용 범위를 넓힘
 - 기존의 사이버보험이나 기술 배상책임보험은 시스템 장애, 데이터 유출, 잘못된 사용 등 운영상의 위험을 주로 다루었으나, 이번 상품은 AI 모델 자체의 성능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즉 AI가 실제로 정확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AI나 생성형 AI 모델이 오류를 내거나 잘못된 결과를 출력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대상으로 함
- 이 보험은 전 세계 AI 개발자와 공급업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AI 모델이 사전에 정해진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받을 수 있음
 - 보장 한도는 최대 1,500만 유로/달러/캐나다 달러이며 Mosaic은 상품의 인수와 판매를 담당하고, Munich Re는 AI 리스크 분석과 기술적 전문성을 통해 보험 인수를 지원함
 - 또한, AI의 성능을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조사 없이도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Mosaic과 Munich Re는 이러한 보험을 통해 AI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AI를 도입하고 싶지만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는 기업에게 해당 보험을 제공한다면, 공급업체가 자사 기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AI 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Mosaic Insurance 보도자료(2026.02.26.) Mosaic partners with Munich Re's aiSure™ to provide pioneering coverage for AI vendors

USD.AI와 Barker, Munich Re가 보증하는 GPU 대출 보험 출시

- 미국의 금융 시스템 개발 기업인 Permian Labs는 기업 리스크 이전 플랫폼인 Barker와 협력하여 GPU 담보 대출에 대한 보장 구조를 개발하였다고 보도('26.3.4.)
 - Permian Labs는 GPU와 같은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USD.AI'라는 GPU 담보 대출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 Barker는 은행 및 대출 기관을 대상으로 담보 평가를 지원하며 기업 리스크 이전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AI를 기반으로 담보의 가치를 평가
- 해당 대출 보험 상품은 Barker가 USD.AI의 대출 담보인 GPU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 미상환으로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Munich Re가 보장해주는 구조
 - 대출이 상환되지 못해 담보가 처분되는 경우 Barker가 평가한 GPU의 평가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될 수 있는데, Barker는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번에 개발한 보험은 담보 평가 오류로 인해 Barker가 보전해야 할 손실이 Munich Re를 통해 전액 재보험으로 뒷받침되어 USD.AI 이용자들은 GPU 담보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
 - 해당 보장 구조는 USD.AI에서 발생하는 모든 GPU 대출에 적용되며 기존 대출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에만 적용될 예정
- 이러한 협력은 AI 산업의 성장으로 GPU 금융에 대한 기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USD.AI가 AI 리스크 관리와 인프라 측면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 Permian Labs 측은 시장 변동성이 큰 AI 인프라 관련 대출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밝힘

출처: Reinsurance News(2026.03.04.) USD.AI & Barker launch insured GPU loan coverage backed by Munich Re

Guidewire, 건물 위험 정보를 보험 업무 전 과정에 통합

- 영국의 인슈어테크 기업 Intelligent AI는 미국의 보험 소프트웨어 기업인 Guidewire와 협력하여 보험사가 고해상도 건물 리스크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Intelligent AI는 보험에서 사용하는 건물 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험사들을 위해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물 위험 분석 및 재건축 비용 분석 솔루션도 제공
 - Guidewire는 인수, 계약 관리, 보험금 청구 등 보험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 이번 협력을 통해 보험사는 Guidewire의 플랫폼 전반에서 Intelligent AI가 제공하는 건물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Guidewire 플랫폼 내 데이터 통합은 보험사가 업무 과정에서 데이터 사용을 위해 시스템 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면서, 보험 인수, 보험금 청구 등의 단계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지원
 - Intelligent AI는 건물의 구조, 용도, 보호 수준, 노출도, 재건 비용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보험사는 전체 보험 계약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인수 단계에서는 견적, 계약 체결, 갱신 시점마다 정확한 재건 비용, 보강된 건물 정보, 위험별 지표를 제공해 인수 정확도와 가격 산정의 정밀도를 높인데, 이는 특히 인수 담당자가 불완전한 제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
 - 또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초기 사고 접수 검증, 전손 여부 판단, 수리와 재건 판단, 손해 규모 비교 등에 활용
 - 더 나아가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는 Guidewire의 DataHub와 연계되어, 재해 위험 분석, 리스크 집적 관리, 규제 보고 등에도 활용되는 등 건물 리스크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결과적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보험사가 인수부터 청구,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Reinsurance News(2026.03.20.) Intelligent AI partners with Guidewire to integrate high-resolution property risk and rebuilt data

정부, 246개 AI 응용제품 개발에 7,540억 원 지원 예정

- 정부는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I)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I스프린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힘('26.3.18.)
 - 이번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총괄하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
- 정부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하는데 올해 AI 예산 2조 4,000억 원 중 6,135억 원을 투입할 계획
 - 올해에는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출연·보조금 4,735억 원과 융자 1,400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계속사업비 1,405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총 7,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

<부처별 지원 분야 및 과제>

대분류	부처명	지원 분야
제조	중기부	· 제조현장 안전, 공정·생산 자율화, 기업 물류 최적화 등
	산업부	· 각종 로봇 개발, 3D프린팅 등 제조 지능화 등
농·축·어업	농식품부	· 농산물 가격 예측, 수확방제 자동화, 농촌형 교통모델 등
	해수부	· 해양(해양 오염 정화, 항만 설계 등), 수산(수산생물 양식 등)
국토·교통	국토부	· 건설현장 안전, 차세대 물류수단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보건·복지·환경	복지부	· 고독사고립 등 심리케어, 고령친화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
	식약처	· 수술·진단 보조, 신체 데이터 분석 등 AI 의료기기
	기후부	· 전력 수급 예측, 폐기물 선별·분류, 기상·기후 예·경보 등
생활·보안·방산	과기정통부	· 생활 안전, AI기반 사이버·물리 보안, 홈 디바이스 등
	국방부	· 전투지원, 국방운영효율화, 사이버·보안 등

자료: 기획예산처

- 정부는 AI 모델 개발,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인증·지식재산권 획득 등을 위한 비용을 기업 수요에 맞게 지원할 계획
 - 또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내 공동관 운영, 공공 조달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규제 개선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힘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AI 응용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해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열고,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AI 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출처: 머니투데이(2026.03.18.) AI 전환 더 빠르게...정부, 246개 AI 응용제품 개발에 7,540억 지원

지방선거 딥페이크 올리자 'Fake'...97% 정확도로 잡는다

-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기술)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국과수의 도움을 받아 최첨단 인공지능(AI) 탐지 모델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26.3.10.)
 -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모습이나 발언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388건에서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1만 510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
 -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는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범죄"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악용한 허위정보 확산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
- AI 탐지 모델은 영상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는 '전역 분석'과 얼굴 등 특정 부위의 조작 흔적을 정밀하게 판별하는 '국소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
 - 박남인 국과수 연구관은 "기존 모델은 얼굴 중심으로만 탐지할 수 있었지만 새 모델은 얼굴 외 영역에서도 조작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며,
 - "단일 모델 기준 탐지 정확도는 약 92% 수준이지만, 여러 모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구조를 적용하면 최대 약 97% 수준까지 성능 향상이 확인됐다"고 언급
 - 해당 모델은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 함께 분석하는 '멀티모달 방식'을 적용해 인터뷰 영상이나 연설 영상 등에서 일부 음성만 조작된 경우에도 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됨
 - 예를 들어 전체 영상 중 특정 구간의 음성만 변조된 경우에도 해당 구간의 이상 패턴을 분석해 추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
- 행안부와 국과수는 앞으로 AI 탐지 모델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또한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
 -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 과정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ی겠다"며 "이번 기술을 각종 디지털 범죄 수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출처: 뉴시스(2026.03.10.) 지방선거 딥페이크 올리자 'Fake'...97% 정확도로 잡는다

머니투데이(2026.03.10.) '정확도 97%' AI로 가짜 영상 잡는다...정부, 선거 딥페이크 전면전

입법조사처, 'AI 지방세 징수 체계' 도입 제안

-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인력 중심의 수작업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하며, AI 기반의 자동 분류와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26.3.4.)
 -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20년 3조 3,263억 원에서 2024년 4조 4,133억 원으로 5년 사이 32.7% 급증한 상황
 - 특히 2024년 기준 체납 징수율은 약 28%에 불과해, 체납 10건 중 7건 이상이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
 - 세목별로는 경기침체에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1조 6,9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8,399억 원), 자동차세(7,050억 원)가 그 뒤를 이었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1조 4,044억 원)와 서울시(1조 287억 원) 두 곳의 체납액이 전국 합계의 55%를 차지하며 심각한 집중 현상을 보였음
- 입법조사처는 지금까지의 징수 방식이 인력 중심의 수작업과 사후적·획일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
 - 방대한 체납 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분석하다 보니 정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징수 성과가 담당자의 경험이나 주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분석
- 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체납자 자동 분류체계' 도입을 제안
 - 'AI 기반 체납자 자동 분류체계'는 과거 납부 이력과 소득·재산 정보를 AI가 학습해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1~1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
 -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저위험군은 모바일 알림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와 연계하며 ▲악성 고위험군에게는 가택 수색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는 등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짐
-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세 체납 빅데이터 센터' 신설을 제안한 상태
 -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표준화된 시스템은 지자체 규모와 관계없이 징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 "다만 민감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보안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

출처: 뉴스버스(2026.03.04.) "AI가 체납자 잡아내야"...입법조사처, 'AI 지방세 징수 체계' 도입 제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지컬 AI 선도 분야 보안 가이드라인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선박, 우주, 로봇 분야에 특화된 보안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26.3.5.)
- (스마트선박) 선박의 디지털화와 자율운항 기술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선박 시스템뿐 아니라 해운사 운영과 선원 활동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대형 해운사가 함께 참여하여 국제 규제와 민간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실무형 기준인 ▲해운사 특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인력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 인식 제고 교육교재, ▲선박 부착용 8대 보안수칙을 제작하였음
 - 특히 교육교재는 사고 사례부터 예방 행동, 보완 조치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선박 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스터 형태로도 제공되어 인적 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주) 위성 제작·발사·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과 서비스가 결합되며, 공급망·운영 환경 전반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 공개한 우주 분야 자료는 총 2종으로, ▲최신 운영환경을 반영한 우주 보안모델 ▲체크리스트 기반의 상세 가이드를 담은 우주 보안모델 해설서로 구성
 - 보안모델에서는 우주 분야 글로벌 보안 규제를 반영한 총 53개 항목의 우주 보안 체크 리스트를 제시하였으며, 국내 우주 기업 담당자가 실제 현업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우주 산업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로봇) 피지컬 AI의 대표주자인 로봇은 제조·서비스·의료 등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이에 대한 유럽, 북미 등 사이버보안 글로벌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상황
 -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하는 로봇 사이버보안 자료는 총 2종으로, ▲기존 로봇 보안 모델의 고도화 버전 ▲로봇 보안요구사항 해설서로 구성됨
 - 이를 통해 기업은 로봇 제품의 개발과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선박, 우주,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도 사이버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며,
 - “이번에 공개하는 특화 보안 매뉴얼이 기업의 보안 내재화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보안 기준 대응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6.03.05.)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시대 선도할 선박·우주·로봇산업 분야 특화 보안 매뉴얼 공개

"정부 서비스도 대화로 찾는다"...AI 적용한 '정부24+' 시범 서비스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능과 서비스 연계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보다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개편했다고 밝힘('26.3.8.)
 - '정부24+'는 "이사했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와 같이 질문하면 시가 질문의 의미를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 질문이 모호할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해 처음 이용하는 국민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편으로 민원 신청 방식도 바뀔 예정
 - 이용자들은 기존처럼 복잡한 메뉴를 찾거나 행정 용어를 이해할 필요 없이, '정부24+'를 통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대화 중심'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국민신문고 고충·건의 민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등 50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513종 서비스는 정부24+에 한 번 접속하면 추가 로그인 없이 각 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었음
 - 또한 이전에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이력을 활용해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 민원 발급', 출산·결혼·이사 등 삶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민원과 혜택을 안내하는 '인생여정 생활가이드'가 새롭게 제공되었음
 - 이와 함께 고령층을 위한 간편 전용 화면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에서는 토지대장·생활기록부·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입력 절차가 복잡한 민원의 신청 단계를 간소화하였음
- 행안부는 향후 시와 대화하면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
 -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발급 수요가 많은 민원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정부 서비스도 검색이 아니라 대화로 이용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찾아다니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AI 기반 정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언급

출처: 뉴스1(2026.03.08.) "정부 서비스도 대화로 찾는다"...AI 적용한 '정부24+' 시범 서비스

지방재정도 AI 시대...일상 언어로 묻고 답하는 지능형 서비스 시작

-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26.3.15.)
 - 행안부는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정책도움e)에 AI 기반의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 이번 서비스는 2008년부터 축적된 지방정부의 재정자료와 지역 경제·사회 정보를 한곳에 모은 공무원 전용 플랫폼에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도 어려운 전문 용어와 복잡한 검색 방식 때문에 현장 공무원이 정보를 빠르게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행안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사업비 약 11억 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3종으로 구성됨
 - '지방재정365 검색 서비스'는 사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통계 자료를 분석해 표나 그래프로 시각화해 답변하는 기능을 갖춘
 - '재정용어 및 제도자동해설 서비스'는 재정자립도와 같은 전문 용어를 법령과 해설집을 토대로 알기 쉽게 풀어주는 기능을 탑재함
 - 또한 '지역특화 서비스'는 유사 사업을 비교·분석하거나 성과지표를 추천하는 기능으로 공무원의 정책 기획 업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시범 운영은 권역별로 점차 확대될 계획
 - 16일 서울·경기권을 시작으로 23일에 충청·호남권, 30일에 경상·강원·제주권 순서로 적용될 예정
 - 행안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재정 정보를 공무원이 일상 언어로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방재정 AI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 “생성형 AI가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과학적 정책 결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언급

출처: 이데일리(2026.03.15.) 지방재정도 AI 시대...일상 언어로 묻고 답하는 지능형 서비스 시작

"AI가 신고 접수"...KT, 소방청과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 KT는 소방청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26.3.18.)
 - 해당 사업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각각 운영 중인 119 신고접수, 출동지령, 상황관제 시스템을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단위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상위 기획 사업으로,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코넥, 브이티더블유, 넥스트아이앤아이, 엠티데이터 등과 함께 세부 시스템 설계와 추진 전략을 마련할 예정

<소방헬기가 익수자를 구조하는 모습>



자료: 뉴스1

- 향후 구축될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AI 음성인식 기반 신고접수, 전국 통합 GIS(지리 정보시스템), 다매체·영상·IoT 자동신고 등을 핵심 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 폭주 상황에서도 긴급도를 자동 분류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대형·복합 재난 발생 시 전국 소방력의 효율적 동원과 지휘가 가능할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하고 있음
 - KT는 ISMP 수립 과정에서 무중단 운영 체계와 재해복구 센터 구성 방안, 데이터 통합·표준화 전략을 제시해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며,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사항과 조직·운영체계 개편 방향도 함께 도출할 예정
- 유용규 KT 엔터프라이즈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ISMP 수립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 핵심 안전 인프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이라며,
 - "KT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소방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힘